July 1, 2012

출애굽기 (Exodus) 1-10  
서로에게 성경공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For we are not fighting against flesh-and-blood enemies, but against evil rulers and authorities*

*of the unseen world, against mighty powers in this dark world, and against evil spirits in the heavenly places.*

*에배소서 (Ephesians) 6:12*

**Chap 1.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종이 되었는지 The story of Israelites became slaves in Egypt**

|  |
| --- |
| **하나님은 작은자나 큰자나 어느 누구든지를 통해 큰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해야 되는 질문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합니까? God can use people from small to great to accomplish mighty deeds; the question is, are you in His-story?**  15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16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 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 주고 아들이면 죽여 버려라!” 17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 주었습니다. 18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21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15 Then Pharaoh, the king of Egypt, gave this order to the Hebrew midwives, Shiphrah and Puah: 16 “When you help the Hebrew women as they give birth, watch as they deliver. If the baby is a boy, kill him; if it is a girl, let her live.” 17 But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they refused to obey the king’s orders. They allowed the boys to live, too. 18 So the king of Egypt called for the midwives. “Why have you done this?” he demanded. “Why have you allowed the boys to live?” 19 “The Hebrew women are not like the Egyptian women,” the midwives replied. “They are more vigorous and have their babies so quickly that we cannot get there in time.” 20 So God was good to the midwives, and the Israelites continued to multiply, growing more and more powerful. 21 And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

**Chap 2. 모세는 바로왕 가족과 살았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일으켜 광야로 도망 갑니다.  
Moses lives with Pharaoh’s family; Moses causes trouble and flees to the wilderness**

|  |
| --- |
|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고마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결국엔 당신이 도우려고 했던 일을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Even though you act out of love, people may not appreciate what you do. They may accuse you and cause more trouble for you. God may grow you this way; He calls us to love such people.**  11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2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13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14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1 Many years later,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visit his own people, the Hebrews, and he saw how hard they were forced to work. During his visit, he saw an Egyptian beating one of his fellow Hebrews. 12 After looking in all directions to make sure no one was watching, Moses killed the Egyptian and hid the body in the sand. 13 The next day, when Moses went out to visit his people again, he saw two Hebrew men fighting. “Why are you beating up your friend?” Moses said to the one who had started the fight. 14 The man replied, “Who appointed you to be our prince and judge? Are you going to kill me as you killed that Egyptian yesterday?” |

**Chap 3, 4.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며 준비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God meets Moses to reveal plan for him; Moses gives excuses why he is not fit for the job**

**4** 10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1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그러니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13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1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 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출애굽기 2장에 있던 일로 인하여 모세는 변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10 But Moses pleaded with the Lord, “O Lord, I’m not very good with words. I never have been, and I’m not now, even though you have spoken to me. I get tongue-tied, and my words get tangled.” 11 Then the Lord asked Moses, “Who makes a person’s mouth? Who decides whether people speak or do not speak, hear or do not hear, see or do not see? Is it not I, the Lord? 12 Now go! I will be with you as you speak, and I will instruct you in what to say.” 13 But Moses again pleaded, “Lord, please! Send anyone else.” 14 Then the Lord became angry with Moses. **(Moses may have provided these excuses as a result of his lifelong anger from Exodus 2)**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Are you ready if God tells you what He wants to do through your life?**

|  |
| --- |
| **하나님은 어쩔때는 이해가 안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린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당신의 믿음을 유지합니까? God sometimes calls us to goals that may not make sense.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you felt was from God, but the results were not positive? When that happens, do you lose your faith?**  **4**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 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22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23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을 보내 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21 And the Lord told Moses, “When you arrive back in Egypt, go to Pharaoh and perform all the miracles I have empowered you to do. *But I will harden his heart so he will refuse to let the people go.* 22 Then you will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 is my firstborn son. 23 I commanded you, “Let my son go, so he can worship me.” But since you have refused, I will now kill your firstborn son!’” **(see when this happened)** |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Moses returns to Egypt; Israelites believe that God sent him**

29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30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31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9 Then Moses and Aaron returned to Egypt and called all the elders of Israel together. 30 Aaron told them everything the Lord had told Moses, and Moses performed the miraculous signs as they watched. 31 *T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convinced that the Lord had sent Moses and Aaron.*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m and had seen their misery,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Chap 5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 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Because Moses obeyed God, Israelites’ lives became harder; Israelites stopped believing**

6 바로 그 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7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8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 주지 마라. 그렇게 해 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9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6 That same day Pharaoh sent this order to the Egyptian slave drivers and the Israelite foremen: 7 “Do not supply any more straw for making bricks. Make the people get it themselves! 8 But still require them to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as before. Don’t reduce the quota. They are lazy. That’s why they are crying out, ‘Let us go and offer sacrifices to our God.’ 9 Load them down with more work. Make them sweat! That will teach them to listen to lies!”

21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준 거나 다름이 없소.”  
21 The (Israel) foremen said to them, “*May the Lord judge and punish you* for making us stink before Pharaoh and his officials. You have put a sword into their hands, an excuse to kill us!”

**Chap 6 모세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Moses stopped believing that God will keep to His word**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9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8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I swore to give to Abraham, Isaac, and Jacob. I will give it to you as your very own possession. I am the Lord!’” 9 So Moses told the people of Israel what the Lord had said, but they refused to listen anymore. They had become too discouraged by the brutality of their slavery.

28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30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28 When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land of Egypt, 29 he said to him, “I am the Lord! Tell Pharaoh, the king of Egypt, everything I am telling you.” 30 But Moses argued with the Lord, saying, “I can’t do it! I’m such a clumsy speaker! Why should Pharaoh listen to me?”

**Chap 7-10 The first nine plagues (첫 아홉[9] 재앙)**

|  |
| --- |
| **최상의 것을 바라세요 –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지 마세요 Settle for the best – God wants to give you the best. Believe that God is good, and believe in His promises.** |

**7Plague of Blood (피)**

**8Plague of Frogs, Plague of Gnats, Plague of Flies (개구리, 이, 파리)**

25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26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죽일 것입니다. 27 광야로 삼 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28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29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 떼를 내일 없애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30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 떼를 없애 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32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25 Pharaoh called for Moses and Aaron. “All right! Go ahead and offer sacrifices to your God,” he said. “But do it here in this land.” 26 But Moses replied, “That wouldn’t be right. The Egyptians detest the sacrifices that we offer to the Lord our God. Look, if we offer our sacrifices here where the Egyptians can see us, they will stone us. 27 We must take a three-day trip into the wilderness to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our God, just as he has commanded us.” 28 “All right, go ahead,” Pharaoh replied. “I will let you go into the wilderness to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your God. But don’t go too far away. Now hurry and pray for me.”32 But Pharaoh again became stubborn and refused to let the people go.

**9Plague against Livestock (짐승, 악질)**

6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7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6 And the Lord did just as he had said. The next morning all the livestock of the Egyptians died, but the Israelites didn’t lose a single animal. 7 Pharaoh sent his officials to investigate, and they discovered that the Israelites had not lost a single animal! But even so, Pharaoh’s heart remained stubborn, and he still refused to let the people go.

**Plague of Festering Boils (독종)**

**Plague of Hailstorm (우박)**

15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16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 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여 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17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18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19 그러니 들에 있는 네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20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21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 두었습니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23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24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25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26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15 By now I could have lifted my hand and struck you and your people with a plague to wipe you off the face of the earth. 16 ***But I have spared you for a purpose—to show you my power and to spread my fame throughout the earth.*** 17 But you still lord it over my people and refuse to let them go. 18 So tomorrow at this time I will send a hailstorm more devastating than any in all the history of Egypt. 19 Quick! Order your livestock and servants to come in from the fields to find shelter. Any person or animal left outside will die when the hail falls.’”20 Some of Pharaoh’s officials were afraid because of what the Lord had said. They quickly brought their servants and livestock in from the fields. 21 But ***those who paid no attention to the word of the Lord*** left theirs out in the open. 24 Never in all the history of Egypt had there been a storm like that, with such devastating hail and continuous lightning. 25 It left all of Egypt in ruins. The hail struck down everything in the open field—people, animals, and plants alike. Even the trees were destroyed. 26 The only place without hail was the region of Goshen, where the people of Israel lived.

**10 Plague of Locusts (매뚜기)**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8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 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9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11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 냈습니다.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모든 땅에 퍼져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 버릴 것이다.”  
7 Pharaoh’s officials now came to Pharaoh and appealed to him. “How long will you let this man hold us hostage? Let the men go to worship the Lord their God! Don’t you realize that Egypt lies in ruins?” 8 So Moses and Aaron were brought back to Pharaoh. “All right,” he told them, “go and worship the Lord your God. But who exactly will be going with you?” 9 Moses replied, “We will all go—young and old, our sons and daughters, and our flocks and herds. We must all join together in celebrating a festival to the Lord.” 10 Pharaoh retorted, “The Lord will certainly need to be with you if I let you take your little ones! I can see through your evil plan. 11 Never! ***Only the men may go and worship the Lord***, since that is what you requested.” And Pharaoh threw them out of the palace. 12 Then the Lord said to Moses, “Raise your hand over the land of Egypt to bring on the locusts. Let them cover the land and devour every plant that survived the hailstorm.”

**Plague of Darkness (흑암)**

24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 놓고 가거라.” 25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26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24 Finally, Pharaoh called for Moses. “Go and worship the Lord,” he said. “***But leave your flocks and herds here***. You may even take your little ones with you.” 25 “No,” Moses said, “you must provide us with animals for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to the Lord our God. 26 All our livestock must go with us, too; not a hoof can be left behind. We must choose our sacrifices for the Lord our God from among these animals. And we won’t know how we are to worship the Lord until we get there.”

**상원 전도사가 생각하게 된 것들 (Pastor Sang’s after thoughts):**

1. 출애굽기의 재앙들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과 같은가요?  
   Exodus plagues to be a repetition of the plagues to come in Revelations?
2.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현제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가요?  
   Old Testament to be a physical symbolism for the current people of God?

|  |  |
| --- | --- |
| **구약** | **신약 (현제)** |
| 아담을 통해 삶이 시작 됬다 |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음으로 삶이 시작된다 |
|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천들이다 |
|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목적지는 좋은 땅이였다 (가나안) | 크리스천들의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 |
|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믿음을 잃기가 쉬웠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다. | 가는 길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믿음을 잃기가 쉬웁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며, 좁은 길로 가지 못한다 |
|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그 법을 잘 따라야 했다. |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법을 받았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 주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이고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분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된다. 이 것이 새 언약의 법이다. 이 법을 잘 따라야 한다. |
|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 났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 기간은 길었고, 인내 해야 됬다. | 현제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자들은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른다. |

구약은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일가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쓰는 것일가요?  
Was the Old Testament given to the people of the New Testament (us) so we can remember that same events will happen? By our lives today, are we writing “His-story” – the story of God’s redemption of mankind?

1. **하나님의 부르심** – 하나님은 당신을 어느 길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궁굼하십니까?   
   God’s Calling - What do you feel God has called you to (Big Dream God has put in your heart)? Do you know what God wants to do through you in your life?
2. **당신의 기도** – 당신은 어떻게 기도 하십니까? 기도 하면 하나님이 말하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기도 하게 됩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 갈 수록 (기도 제목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때) 믿음을 잃습니까?  
   **Your Prayers** - How do you pray? Do you pray with faith believing God will do what He says? Or so you pray without faith? Also, as time goes by (when it seems your prayer requests are not being fulfilled), do you lose faith?

**이번주에는 출애굽기 11-20장 읽으세요, Read Exodus 11-20 this week**